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원

시, 근로자 복지증진·근무환경 개선... 노후 산업단지 정비 지원

남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적극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5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1단계(2011~2015)사업에 24억여원 지원에 이어, 2단계(2016~2020)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보수 및 수도관로, 하수시설 보수, 관리사무실 정비 등 1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과 상생하는 협력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기업 후견인제'를 비롯해 기업 소통간담회, 제조업체 근

로차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기숙사, 구내식당, 체육단련시설 개보수 등) 및 근무환경 개선(집진시설, 작업장 내 포장, 환기 시설 등)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도 관내 중소 제조업체에 취약한 청년층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애항심 고취를 위한 애항장려금을 1명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 및 국내 박람회 참가 기업에부스비 지원(업체당 2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남원시는 올해도 실질적인 기업 지원 창구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발굴 및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땀흘려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종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군청 농업교육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실군, 지역사회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군청 농업교육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 대표협의체 위원 22명과 금년에 처음 출범하는 읍·면 협의체 공동위원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올해 위촉된 위원 167명을 대상으로 읍·면 행복보장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12명을 선출해 읍·면 복지육구 및 수요파악을 토대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심민 위원장은 "군의 신뢰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 및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사각지대에 처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복지를 발전시키는 복지리더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방문상담,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지역자원 등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가 다양한 복지 현장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됐다.

남원시 '지방자치단체 추진 실적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5천만원 확보

남원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주어진다.

남원시는 보건관리지역의 개발행위 규모 확대(2만~8만㎡), 건축 용적률 완화(준주거지역 400~500%, 중심상업지역 900~1,300%, 일반상업지역 800~1,000%), 도로점용료 분할납부규

정 미련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였다.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하던 임의규제를 찾아내 93건을 정비하였고, 3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는 2015년 대한상공회의소가 228개 지자체의 기업관련 조례·규칙 및 기업지원 제도를 분석하

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발표한 '경제활동진화성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수상하여 규제개혁 우수 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며,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



'고창모양성제' 사전 홍보

보존회, 황금연휴에

고창군이 올해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어 새로운 위상으로 펼쳐질 '제43회 고창모양성제'의 사전홍보에 힘쓰고 있다.

고창읍성 공복후 뒤 광장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제43회 고창모양성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사전 홍보에서는 국악예술단 고창의 퓨전국악공연, 고창국악보존회의 판소리배우기, 미술사 박종

원의 미술공연 등 작지만 알찬 거리공연을 통해 고창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거리, 체험거리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관광객들은 고창읍성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판소리 여섯마당을 사)모양성보존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황금연휴기간을 활용해 고창읍성 공복후 뒤 광장에서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제43회 고창모양성제' 홍보활동에 나섰다.

모양성보존회 진남표 회장은 "고창모양성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유망축제를 넘어 우수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춘향제 개막식후 화려한 불꽃 향연

13일 밤 9시40분경 시작

"춘향!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춘향고를 남원에서 진행되는 제 86회 춘향제의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 향연이 펼쳐진다

춘향제 불꽃향연은 광한루 앞 승사교에서 13일 오후 9시40분경 춘향제 개막식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여 약 10분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예년과 달리 폭죽 수와 시간을 늘려 다양한 불꽃을 선보임으로서, 관광객과 시민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춘향 사랑의 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4일 관계관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사전 조치토록하고 12일에는 현장보고회를 갖는 등 안전을 행사의 최우선에 두고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을 위하여 화약이 설치되는 13일 오전 9시부터는 승사교 3차로 및 인도 일부 구간을 부분통제 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오수면·35사단 봉사활동 펼쳐

임실군 오수면과 제35보병사단 정비근무대는 군도 33호선 일원과 평당마을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근무대 장병 20여명은 지난 6일 오수면을 찾아 오수 의견제를 앞두고 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미관 제공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1km에 달하는 도로변의 잡초제거 및 각종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김동필 정비근무대장은 "제조작업 이외에도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민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군부대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대대는 매년 지역 사회봉사 활동과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오수 의견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사도우미 및 군악대공연을 맡아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1일 명예 민원실장' 운영

고창군이 명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도움서비스 '1일 명예 민원실장'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10일 군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민원실장에 구양서(전 고창군 산림조합장) 씨를 위촉했다.

구양서 명예 민원실장은 이날 1:1 민원안내와 애로사항 청취, 상담 업무를 진행하며 장애인과 어르신 민원인들에게 먼저 다가갈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구양서 명예 민원실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고창군 민원실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실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행정경험이 있거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 실정이 밝은 주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명예 민원실장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우수 농가민박 4곳 선정

남원시 농어촌민박 4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농가민박'에 선정 됐다.

남원시는 농어촌민박 중 우리나라 고유의 농가로서의 특색을 유지하며,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아침식사(B&B)를 제공하고, 위생·소방안전 등 시설수준이 높은 민박을 평가한 우수 농가민박에 남원시 4개소가 선정(전북 8개소)되었다고 밝혔다.

선정된 4개소는 지리산다래랑민박(강동중, 산내면 해오름길 102), 지리산한누네민박(윤영오, 산내면 황치길 180-342), 송림원민박(오인숙, 윤봉을 가산화수길 60), 공할머니민박(공순순, 산내면 매동길 11-3)이다.

우수 농가민박으로 선정되면 에어비엔비(Airbnb), 호텔스닷컴 등 글로벌 숙박예약 시스템에 등재되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